

배포 2023. 12. 26.(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2023. 12. 26.(화) 회의개최 시

(지 면) 2023. 12. 26.(화) 회의개최 시

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 문체부 손잡는다

-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등 과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6일(월),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을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학생선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파스,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문체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국민은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팝스 측정 종목 변경 】

구 분		현 행	변 경
신체조성	비만	체질량지수(BMI)	좌동
건강체력	근력	악력	좌동
	근지구력	윗몸말아올리기 (무릎대고)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심폐 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 (초 15m, 중·고 20m), 오래달리기-걷기, 스텝검사	왕복오래달리기 (초·중·고 20m)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좌동
운동체력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5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스피드		50m달리기

<학생 체력 증진>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2024년부터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운영한다.
그리고 팝스 4·5등급자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 및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i(e)-팝스)’ 앱을 보급하여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기능] 등급별 운동처방, 90여 종 동작, 인공지능(AI) 운동자세 분석, 실시간 피드백

[활용] 교사 업무경감(계획서 서식 제공)에 기여하고, 늘봄학교 등에서도 활용 가능토록 개발 예정

【 이(e)-팝스 앱 기능별 화면 】



또한, 생존수영 교육을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약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여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아침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체육활동 일상화 운영 사례 】

- ▶ (서울 ‘시즌2 다시 뛰는 아침’)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1학생 1스포츠클럽 추진, 저체력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 운영, 학생주도적 자율 체육 지원을 통한 건강 회복
- ▶ (부산 ‘아침 체인지(體仁智)’) 학교 여건에 따라 전교생 또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장·체육관에서 ‘자기주도형 체육동아리 활동’, ‘개인 및 단체 스포츠’ 등 체육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체력 향상 및 인성·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 개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멘토링) 확대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육·일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생존수영 등 체육 실기 관련 교원 연수를 확대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체육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유명 스포츠 스타를 학교체육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황희찬은 2024년 5월에 차두리(현 축구대표 코치)와 문동주(야구 투수)는 2024.1월~2월 위촉 예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담당 부서 <총괄>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985)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대진 (044-203-6990)
		담당자	교육연구사	심규태 (044-203-6992)
		담당자	교육연구사	김영준 (044-203-6993)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3-3131)
		담당자	사무관	박인혜 (044-203-3134)
		담당자	주무관	이현빈 (044-203-3133)

